

금호, “아름다운 비상” 홍보 워크숍

금호아시아나 그룹 계열사 홍보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룹 이미지 제고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금호아시아나 그룹 산하 20여개 계열사 홍보 담당자 90여명은 6월21일부터 22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경기도 수원시 대우건설 인재원에서 <금호아시아나 홍보디자인부문 워크숍>을 열고 합숙교육을 실시한다.

국내 주요 그룹 가운데 전 계열사 홍보맨들이 정례적으로 모여 합숙교육을 하는 것은 금호아시아나가 유일하다.

금호아시아나는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전 계열사 차원에서 홍보담당자 모임을 1년에 한차례씩 실시해 왔는데 워크숍에서는 2006년 인수된 대우건설 홍보팀까지 참가한다.

특히, 2006년부터 그룹 홍보부문에서 디자인 광고 부문이 떨어져 나갔는데 워크숍에는 동참해 그룹 차원에서 통합된 이미지 구현을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그룹 홍보실을 포함해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금호석유화학, 대우건설 등 주요 계열사 홍보 임원들도 모두 참석해 박삼구 그룹 회장이 2007년 슬로건으로 내건 <아름다운 비상>을 위한 통합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워크숍은 홍보맨들의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 이루어지며 박삼구 회장은 참관하지 않고 추후 보고만 받을 것을 알려졌다.

주요 내용은 디자인 광고 부문에서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특강이 실시되며 대우건설 광고전략도 발표되고 우수 광고동영상을 시청하며 위기가 닥치면 홍보맨이 대처하는 방법도 배운다.

<화학저널 2007/06/19>